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2019년 4월 14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4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6지구 - 정발산 성당



설립 2000년 9월 7일
전화 사무실 031-919-6811, 6812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19(정발산동 1207번지)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ㄱ,19-20,23-24(◎2ㄱ)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영성체송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잃으면 부활의 기쁨도 잃는다



안종찬 나보르 신부
인창동 부주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업을 이룩하신 때이며 교회 전례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성주간(聖週間)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성주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고 기쁨의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난의 길이 시작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주님을 등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행렬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길에서 그것이 뜻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와 달리, 주님의 용서는 증오하고 시기하며 단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당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의 수난은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리스도 신앙인의 관점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사건입

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납니다. 죽음이라는 두렵고도 적막한 순간에 주님의 빛이 비로소 타오릅니다.

이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살이라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의 파도에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려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한다면 놀랍게도 주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송고한 용기를 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나의 죄에 있고, 나에게 대한 사랑과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거룩하고 성대하게 거행되는 성주간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깊이 동참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축제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

부활의 힘



인간됨에 멀미를 느낀 사람이 있었다.
 모이기 위해, 날기 위해, 찢고 까불고 싸우는 인간들, 그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나를 저들과 다르게 하소서, 그날의 먹이에 족하고, 통장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이게 하소서.”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몸이 한 마리의 동박새로 변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 당장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차츰 그는 그의 기도를 신이 들어준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서 살아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움직임으로 얻으면 되었다.
 속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다. 모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새로서 살다가 삶을 마치면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해 질 무렵 그의 앞에 신의 대리자가 나타났다.
 “이제 너의 기한이 다 차서 인간의 몸으로 바꿔 줘야겠다.”
 “싫습니다. 저는 새의 세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신의 대리자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다.

옛날에 새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인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었는데
 너는 새로서 계속 살아가겠다고 그 이유를 들어 보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 이런 사람에는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니요? 저는 죽어서 부활하고 싶은데요?”

신의 대리자가 타일렀다.

“그렇다면 죄가 널려 있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죄가 없는 곳에서의 삶에는 값이 있을 수 없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에만 값이 있어 부활이 주어진다.”

신의 대리자가 결론을 지었다.

“연꽃이 칭송을 받는 것은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몸은 서서히 새에서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



다종교 사회의 천주교인을 위한 95개 문답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

편찬 |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규격 | 46판(128×188mm) | 면수: 184면 | 6,000원

문의 |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한국 사회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며 공존하는 법

“가족이나 친지의 중대사로 이웃 종교의 예식에 참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길일을 받아 이사나 혼인을 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됩니까?”

“‘전생에 무슨 업보를 쌓아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삼우 미사는 유교 관습입니까?”

“무슬림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모든 종교 진리의 가르침은 같습니까?”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질문들에 천주교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펴냈다.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한국 사회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며 공존하는 법을 95개 문답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다종교 현상과 종교간 대화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통해 원리를 제시하고, 다종교 상황에서 가톨릭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이웃 종교들을 민간 신앙과 무속,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로 나누어 각 종교에서 유래한 문화와 관습들을 가톨릭 교리의 기준으로 식별하고, 일

상과 사회생활에서 이웃 종교를 접하게 되는 구체적 사례와 해설들을 실어, 신자들이 이웃 종교에 관하여 알고, 가톨릭 신앙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와 실천법을 알려준다.

이어 책은 종교간 대화의 개념과 선익을 설명하고, 사형제도 폐지, 생태 환경 보호, 이주민과 난민 등 한국의 여러 종교가 함께하는 사회 정의의 실천 활동과 그 교리적 근거를 소개한다. 말미에는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당, 불교 사찰과 법당, 원불교 교당, 이슬람교 성원 등 각 종교의 예배소 해설을 첨부하여, 이웃 종교를 방문할 때 예배소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돕는다.

본문 앞에는 참고 문헌 출처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고, 각 문답마다 해설의 핵심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 가톨릭 교회 교리서 조문, 교황과 교황청 문헌 본문도 인용되어, 독자들이 종교간 대화 실천의 교리적 근거를 명쾌하게 알 수 있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 읽을 수 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는 서문을 통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복음의 빛으로 식별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사회를 함께 이룩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참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이사야 3

—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집과 건물, 숲과 강, 삶의 터전들이 무너집니다. 아비와 형제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린 배를 움켜쥔 아이와 여인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배회합니다. 장터의 소란함과 활기는 사라지고, 눈물과 절규, 비참의 침묵이 잿빛 거리를 채울 뿐입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차가운 악랄이 지배합니다. 검붉은 칼바람 뒤로 수탈의 쇠갈퀴가 들이닥쳐 남은 것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절망, 전쟁이 남기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시절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강력한 군대를 앞세운 아시리아 제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북왕국처럼 멸망으로 치달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패와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이사 1,21-23; 10,1-2; 28,7-8; 29,15). 희망 없는 시대, 떠밀려 절망의 나락 앞에 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나서서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실 새로운 시대,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들 사이에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사야서의 구성은 마치 전쟁의 어둠 한 가운데서 평화의 새 빛을 선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2,4-)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2,4-)

주님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 새로운 임금-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9,1,5-7) 그는 “평화의 군왕”(9,5-)이라 불릴 것이고, “공정과 정의”(9,6)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열정으로’(9,6)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베어지고 넘어져도 남겨질 그루터기(6,13), 거기에서 움터올 새로운 싹(11,1), 그가 바로 메시아-구세주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주님의 영이 머무는 자(1 사무 16,13; 이사 11,2)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11,2,3)입니다. 정의, 곧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메시아는 정의의 표본(11,5)이 될 것이며, 그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16,5; 32,1). 그래서 ‘정당하게 시비가 가려지고 불의가 사라질 것’입니다(11,3-4).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32,17) 정의와 공정은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32,17). 이 평화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젓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11,6-8) 평화의 시대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동물과 동물 사이에 생겨난 갈등과 분열(창세 3장)이 다 사라지고 ‘평온과 신뢰’ 속에 어울려 지낼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이사 32,16) 나무들과 자연까지 정의와 공정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까지 평화가 가닿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자리하고 그래서 평화가 넘치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어떤 세력이나 힘, 나라나 위인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25,9; 26,8), ‘한결같은 심성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12,2; 26,3,4; 30,15; 50,10)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26,12 참조).

평화로 나아가는 첫 조건은 언제나 ‘주님과 이루는 평화’(27,5)입니다. 곧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화해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 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1,18) 주님 앞에 서는 것,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43,22-28 참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43,25)

사람들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와 임금, 땅과 성전을 잃고 머나먼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당신과 화해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언제나처럼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히브 1,1)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를 별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기고’(이사 53,4) ‘우리에게서 잘라내려’(53,8) 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53,7) 끌려간 그분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53,10) 내놓았고, ‘우리의 악행 때문에 찢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으스러졌습니다.’(53,5-7). 그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이루신 일(53,5-7)입니다. ☼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놀라워라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 대신학교

‘우리 시대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에 기대하는 긴요한 과제를 잘 담고 있는 말미어서 주목과 관심을 끄니다. 하지만 책이든 강연이든 이 근사한 표현이 어울리는 내용을 만나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은 오랜 공력과 진실성과 깊은 뿌리에서 유래한 진정한 참신함을 갖추어야 할 것이기에, 쉽사리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이 포장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팻치 워크 patchwork 영성’이라고 불리는 피상적인 ‘짜집기’나 시류에 야합하는 ‘게으른’ 적용, 무책임한 혼합주의 등은 영성 조차도 유행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오히려 신앙과 영성의 성장에 있어 유익보다는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전통적인 신심 이외의 영성적 추구 자체에 대해 회의나 의심을 표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영성’을 진지하면서도 담대하게 추구하는 것은 변화와 다원성의 시대에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 믿습니다. 성서와 성전에 늘 새롭게 귀 기울이고 철학과 신학, 실천과 헌신의 역사를 보물창고를 탐색하듯 거둬 살피고,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마음의 상태, 세상의 흐름과 우주적이고 생태적인 자연의 변화 생성을 섬세하게 지각하면서 ‘시대의 표징’에 응답하는 영성을 통찰하고 실천하고 명명하는 것은 힘들지만 값진 작업입니다.

겸허하면서도 솔직하게 이러한 영적 탐구의 여정을 전해 주는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을 함께 모색하는 이 시대의 종교적 삶의 매력을 실감합니다. 근자에 들어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미국의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로 살고 있는 다비드 슈타인틀라스트의 책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영성’의 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26년생이니 90세가 넘는 고령의 수사님이지만 여전히 대중강연과 저서를 통해 그는 종교간의 대화나 수도원의 은수처에서 수행하는 명상의 열매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비엔나에서 20대 때 실험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53년 수도원에 입회하였고, 선 수행을 통한 종교간의 영성적 대화나, 과학과 영성과의 만남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선구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그가 긴 세월 걸어온 영적 여정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1984년에 내어놓은 중요한 저서인 <감사 Gratefulness> (김수진 옮김, 분도출판사, 2019)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많은 이들이 그의 영성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영성에서 매우 공감한 것은 ‘감사하다’라는 일상적이면서도 영성적인 함의를 지닌 태도가 ‘놀라워하고’ ‘깨어나는’ 태도와 그 존재적 차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놀라워라!’라고 경탄하는 것은 ‘감사’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잠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삶은 이러한 깨어남의 삶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명 기타리스트인 존 윌리엄스가 연주하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유명한 칸타타 140번 ‘깨어나라,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으니 Wacht auf!’의 코랄을 편곡한 곡을 감상합니다. 이 편곡은 흔히 “Sleepers Awake”로 불립니다. 🎵



편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칸타타 140번’(Sleepers Awake)
연주: 존 윌리엄스



안녕하세요! 6지구 정발산성당의 꽃! 아띠 청소년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반적인 학습 교리가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리에 포인트를 맞춰 친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실천하는 6가지의 <선택 미션>과 11명의 선생님들의 재능을 살려 만든 포스트 게임 <아띠 미션>을 실시합니다.

선택 미션은 [사제관에서OO하기, 청소년 십자가의 길, 야외소풍, 지향묵주기도, 만들기 활동, 주일복음 나눔] 6개의 주제를 조별로 돌아가며 실시하는데요, 왕왕~ 잘생기신 부주임 신부님과 간식을 사제관에서 먹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며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의논하고 선택하여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나이가 다르더라도 허물없이 친해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아띠('친한 친구'라는 뜻의 순우리말)들입니다.

2학기에도 블록 버스터급! 미션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요~(빠밤) 아띠 청소년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검색창에 '정발산성당 청소년부 주일학교'를 치시면 귀엽고 깜찍한 저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비비샘의  중고만화 김준희

평평해져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

평평하게 두드려서

평등하게 만들어야겠어요.



평 등
 평평하게해져라!
 사



4월 18(목)	10:30	성유축성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 14시 의정부교도소 성목요일 미사
	20시	주님만찬성목요일 저녁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19(금)	20시	주님수난예식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0(토)	20시	파스카성야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의정부교구 제8기 민족화해학교 심화과정 연수 안내

대상: 민족화해학교 1단계 수료자
 일시: 6/1(토) 10:30~2(일) 17시 /문의: 031-941-6235~6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인원 및 연수비: 선착순 100명, 5만 원(1인)
 종강미사 및 수료식: 6/2(일) 16시 /민족화해센터 대강당

한국 천주교의 뿌리 : 중국 만주 성지순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밑일이 되신 조선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 르 주교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상: 교구민(선착순 30명) 일시: 8/21(수)~27(화) 6박 7일
 장소: 서만자, 마가자, 소팔가자, 김대건 기념관, 백두산 등
 비용: 옵션포함 약 195만 원 문의: 031-850-149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22 (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으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심계자 세라피나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교정사목위원회 사법형그룹홀 직원모집

모집분야: 그룹홀 보호상담교사 /모집인원: 1명(여)
 직무: 생활지도 및 행정 /자격요건: 청소년 보호관련 전문자격 (청소년 상담 지도사, 사회복지사, 초중등 교사 등)소지자
 근무형태: 계약직, 2교대 /문의: 031-856-0215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접수기간: ~4/25(목), 17시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e-mail 지원, kyojung@ujb.ucatholic.or.kr

미사 · 피정

2019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안내

주제/강사: 지존하신 성체께 교회와 자녀들을 봉헌하는 티 없으신 성모성심 /이정운 신부, 김강정 신부
 일시/장소: 4/27(토) 09시~17시 /후곡 성당
 파견미사: 이기현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회비: 5천 원(김밥, 물제공) /문의: 010-9272-4660

2019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1(토) 09시~17시
 장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경의 중앙전철 동농역, 셔틀버스 운행)
 강사: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인천가톨릭대 교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살레시오회 관구장)
 미사: 이기현 베드로 주교외 사제단
 준비: 티켓(5천 원) 및 개인 도시락 지참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3.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받기도회

일시: 4/17 (수) 오후7:30~9:40
 강사: 이훈희 바오로 (삼성산)말씀과 치유
 장소: 의정부1동성당 /문의:010-3790-0496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4/24(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을 후원하시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모두 가능)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교해성사,상담)

일시: 4/15(월)오후1시~4:30(말씀,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010-5245-0121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주님 사랑 안에서 듣고, 깨닫고, 쉬고, 힐링되어 가는 프로그램
 일시: 5/25(토) 14시~26(일) 17시
 장소: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15만 원 (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신한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요) /찬미: 고영민 단장, 손현희 준비: 미사, 수건, 차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성소 식별 피정

일시: 5/3(금)~5/6(월) 3박4일
 대상: 20~35세이하 미혼남성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경북 왜관)
 신청기간: 4/26까지(선착순15명)
 피정비: 1만 원
 신청 및 문의: 010-8353-2323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4/28~30, 5/4~7(추차도), 5/10~12, 5/15~17(제주 성모의밤), 5/19~22(추차도), 5/31~6/2
 접수 : 02-773-1463/064-756-6009

최봉도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피정 2박3일

희망기도 마음이 가벼워지는방법
 일시: 5/3~5/5 (금,토,일)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지하철 2.6호선 7번출구 도보10분 문의: 010 6254 0057

예수회 성소피정(5/3~6)

일시: 5/3(금) 저녁~5/6(일)(월)
 장소: 여주 파티마 피정의 집
 대상: 35세 이하 남성
 문의: 010-3324-0731 /vocation.jesuits.kr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참 행복 (마태5,3-12) /안세진 신부
 일시: 4/15(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행복의 길 /정제천 신부
 일시/장소: 4/17(수) 13:30~16:30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피정

일시: 5/17(금)16시~5/19(일)
 장소: 인천 가정동 기도의회정
 신청: 네이브(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피정)
 문의: 010-9240-4627 /25만 원

성경동독 호소단식 피정

92차 5/10(금)~13(월), 93차 6/6(목)~12(수), 94차 7/26(금)~29(월)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3박4일 기준), 문의: 010-9363-7784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4/26(금)~27(일) 2박3일 /회비없음
 장소: 성 빈센트환경마을 /문의: 010-9318-1366
 한국 틴스타와 함께 합니다.

올리베타노 수녀회 봄 성소피정

일시: 5/11(토) 오후4시~5/12(일) 오후3시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연락: 010-8551-3312, 대건수녀

교육 · 모집

난민활동가 초청강연회 참여자 모집

주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일시: 4/25(목) 15시~17시
 장소: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
 내용: 실제 난민 현장의 전문가 활동 나누기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문의: 허창우 사회복지사 031-975-3322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지역 자활활동가 모집

여성긴급전화 1366 자활활동가 모집 및 교육 실시
 일시: 5/14(화) 14시~17시 /교육비: 무료
 문의: 031-873-1368 /www.ggbb1366.or.kr

훈인재발견(르트루바이)주말

훈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한 2박3일 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시: 5/31~6/2
 장소: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집
 문의: 02-929-2141

2019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일시: 4/29(월)~30(화)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
 주관: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99) 문의: 010-8985-9971, 등록비: 4만 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교의/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명
 일반및편입학전형: 4/22(월)~5/2(목)
 전형일: 5/17(금)
 일반및편입학2차전형: 5/20(월)~30(목)
 전형일: 6/14(금)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젊은이 수도생활 피정

주제: Ora et Labora
 대상: 젊은이 미혼 여성 /회비: 7만 원
 일시: 5/4(토)~5/6(월)
 장소: 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문의: 010-6259-6364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3 동부유럽 12일 379만원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원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단종독예방교육 안내

일시: 4/27(토) 14시
 장소: 단종독사목위원회(서울시 중구 종림로 27 가톨릭출판사 신관 5층) /대상: 물질중독자(알코올, 마약 등)·행위중독자(도박, 인터넷, 쇼핑 등) 및 가족 /강사: 성직자, 정신과전문의, 중의학박사, 중독상담사 등
 접수및문의: 사전전화접수 02-364-1811~2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부천시모병원 알코올의존치료센터

생명신비의상 수상기관
 술로고통받는이들 위한 8주 재활프로그램
 단주친목자조모임(AA, AI-anon)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회복률
 수시상담가능 032)340-721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봄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2019 예수회 인권과 연대 강좌-식민지 디아스포라

일시: 4/26(금) 16:30
 장소:예수회센터 대강의실 강사:이지상(가수 겸 작곡가 성공회대 교수)
 문의: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02-3276-7708

조각보 모임

독서와 문화탐방을 통해 각자의 순수한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 /일시: 매월 세 번째(일) 14시
 대상: 미혼여성, 나+너=우리(조각보)
 주제: 독서 문화탐방
 장소: 대구 계산서원
 신청: 010-2353-6219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교실

월요일 11시 시스따나교회음악원 02-363-2258

인천교구 지혜의 샘(복합성가교동체) 교육 일정

장소: 송내동 366-5 지혜의샘/343-1871
 월: 전문 선교사양성반(www.jwisdom.or.kr 참조)
 화: AM 성경해설, 통독/PM 성경도형틀, 미사, 목주100단
 수: AM 성경해설, 통독/PM 신약 강해, 미사, 목주100단
 목: AM 목주 100단/PM 말씀치유 낮기도회, 미사
 금: AM 성경통독/철해(목주100단, 미사, 성시간, 말씀치유, 18~4:30)
 일: 10~17시 목주100단, 말씀치유 낮기도회/17시 미사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트라키 3기 모집 안내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일시: 5/25(토)~7/13(토) /매주(토) 14시~17시(8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별내동)
 문의: 010-8985-9971, 031-575-9971

자기조절을 위한 심리상담

내용: 마음과 뜻대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 생각 등을 살피고 요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조절의 힘을 증장시킴 /대상: 청소년~성인
 문의: 02-775-4831(명화심리상담소)

6회 가톨릭문화원(ALMA ART) 어린이영화제 (날개)

일정: 6/29~6/30(1박2일 가족캠프)
 신청마감: 5/20 www.kocccc.kr
 초등학생 50명 (참가비전액 무료)
 문의: 1577-3217, 010-5717-3217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5/1 6/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6/3 6/17 터키그리스12일 365만 원
 6/4 10/9 홍콩마카오4일 129만 원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개인, 부부, 가족

전화상담전용: 02-990-9366, 월~금 10시~4시
 대면상담예약: 02-990-9360, 서울 수유동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www.green1004.or.kr)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5/14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390만 원
 6/03 발칸반도 및 매주고리에 11일 370만 원
 7/0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감사와 영혼의 치유 제주힐링 성지순례 3일

일시: 5/28, 6/4, 7/12, 8/9, 9/17
 장소: 제주성지6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8/20 출발 코카서스3국 11일

홍성남 신부님과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대한항공
 기간: 6/24-6/27 4일간
 문의접수: 010-3712-8119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5/13 러시아 발트 3개국 10일 395만 원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동: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다양한 경험
 설명회: 4/14(일) 2시 명동 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20(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예수 고난회	5/4 18시~5일 11시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고해성사(1) :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에페 2,1)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하느님 안에서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 은총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인간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나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 좀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리라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라서 세례성사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간직하고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회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마르 1,15)라고 매우 중요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올을 성사적으로 실현하므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립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23항)

회개의 참된 의미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31항) 그러나 고해성사가 지니는 이러한 “회개”의 의미를 어렵고 부

담스럽게 생각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회개를 받아들이기에 스스로 지닌 부족함과 나약함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어려움과 부담스러움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회개”한다는 것, 곧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능력과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32항)

고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회개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는 어려움도 겪겠지만,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으로 복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마르 2,5) ☪